



[정규과정] TV포맷 창작

주제 : TV포맷 트렌드



시대가 변하면서 TV포맷의 트렌드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최신 TV 포맷 트렌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튜터 김신정



1. 나 혼자 산다

2013년 3월 시작해 롱런하고 있는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다.

2017년 8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5위로 순위권에 첫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와 2018년 1위를 기록하였다.

결혼 적령기를 넘긴 스타나 기러기 아빠가 사는 모습을 그리는

리얼 다큐 형식의 콘셉트로 시작,

현재는 다양한 스타들의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관찰형 포맷의 ‘나 혼자 산다’가

높은 인기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우선 한국 사회의 환경변화에서 기인한다.

통계청 집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27.9%에 이를 만큼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혼, 비혼,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살고 있다.

많은 시청자들이 화려해 보이는 인기 연예인의

혼자 살아가는 모습에 공감을 느끼고,

아울러 타인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묘미에

무지개 회원들이 함께 품평하는 재미가 더해져 더욱 특별한 포맷이 만들어진다.

실제로도 친하다고 알려진 멤버들의 친밀도가

브라운관을 넘어서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 혼자 산다’는 기존의 포맷을 바탕으로 약간의 변형을 추가하고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정글의 법칙

2011년 10월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는 SBS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개그맨 김병만에게 생애 첫 SBS 연예대상을 안겨준 프로그램이다.

야생 그대로의 정글에서 생존하는 과정을 담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첫 생존을 시작해 아마존, 시베리아, 히말라야 등
익히 알려진 극한의 장소는 물론, 바누아투, 브루나이, 니카라과 등 생소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에 숨겨진 정글을 누볐다.

장르를 규정할 수 없는 신선한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조작 논란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최근까지도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정글의 법칙' 인기 비결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김병만의 캐릭터다.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 첫 회부터 놀라운 속도로 정글에 적응하여
시청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김병만의 타고난 손재주도 '정글의 법칙'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만은 몇 번의 손놀림으로 파라솔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했다.
이색 음식 체험도 '정글의 법칙'의 인기 비결이다.

'정글의 법칙' 출연자들은 지네, 애벌레, 뿔닭, 코코넛 크랩, 박쥐 등을 먹으며
다양한 정글 생존 법칙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관광 및 미션 수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속에서 '정글의 법칙'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색적인 공간에서의 간접 경험에 생존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독특한 포맷과,
이에 적절히 배치된 캐릭터가 '정글의 법칙' 롱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를 믿고 따라와, 도시 어부

채널A의 ‘도시 어부’는 자타공인 연예계 대표 낚시꾼인 이덕화, 이경규 등이 자신들만의 황금어장으로 함께 떠나는 낚시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최근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로, 시청률 5%대를 돌파하며 목요 예능 최강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연예인 몇 명이 한 배를 타고 누가 더 큰 물고기를 낚는지 옥신각신 다투는 단순한 포맷이 이토록 인기를 끌 것 이라고는 담당PD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도시 어부’가 그간의 낚시 예능과 다른 점은 출연자들이 진짜로 낚시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이 프로가 성공한 원인이다.

해외로 촬영을 가도 관광보다 낚시를 더욱 중시하는 출연진들에게 낚시인들은 동질감을 느끼고 시청자들은 낚시에 미친 사람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낚시에 대한 출연진들의 진심이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설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리얼한 캐릭터들의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신선하고 특별한 느낌을 준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포맷을 그대로 차용하더라도 캐스팅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